

金匱要略의 常見腹證에 관한 研究

洪文煒 · 朴宣東¹⁾ · 朴元煥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診斷學教室, ¹⁾方劑學教室

【초록】 金匱要略은 後漢末期 張機가 지은 臨床醫學 專門書籍으로써, 理·法·方·藥이 갖추어진 獨創적인 辨證論治體系를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腹證에 관한 내용을 重히 다루고 있고, 方證辨證이 中心이 되어 腹證을 통한 辨證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診斷學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후 診斷學의 發展은 診脈, 診舌을 위주로 했으며, 腹診의 運用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특수한 배경으로 인하여 계속 발전되지 못하였다. 최근 韓醫學의 診斷方法과 治療方法이 매우 강조되어 활발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腹證變證에 관한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기에, 腹部診斷에 관한 研究의 한 方法으로써 金匱要略에 실려있는 常見腹證에 관련된 內容을 정리한 結果 약간의 知見을 얻었다.

【중심 낱말】 金匱要略, 辨證論治, 傷寒論, 腹證, 方證辨證, 腹診, 胸腹部

I. 緒論

金匱要略은 後漢末期 張機가 지은 臨床醫學 專門書籍으로써, 理·法·方·藥이 갖추어진 獨創적인 辨證論治體系를 수립하고 있으며, 金匱要略의 原著는 傷寒雜病論(共16卷)으로 傷寒(10卷)과 雜病(6卷)의 두가지를 包括하고 있으며, 그 후 西晉의 王叔和에 의해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나누어 졌다. 傷寒論은 外感熱性病의 診療를 中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金匱要略은 內科, 婦人科의 慢性諸疾病을 病類別로 敘述하였다. 특히 金匱要略은 腹證에 관한 內容을 重히 다루고 있으며 方證辨證이 中心이 되어 腹證을 통한 辨證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診斷學의 發展

에 크게 기여 하였다.

腹證은 腹診 方法을 응용하여 얻은 胸腹部의 病變 症狀으로, 즉 觀腹形, 視腹色, 測腹溫, 聞腹音, 問感覺, 按腹力, 診壓痛, 探症塊, 察經絡, 扪虛里, 觸臍中, 摸神關등의 方法으로 얻게된 主·客觀적인 症狀이다.

腹診은 韓醫學 診斷法의 한 方法으로 望·聞·問·切등의 診察 手段을 이용하여 患者 胸腹의 脹·痛·滿·悸·痞·硬·急·結등의 病變 症狀를 診察함으로써, 內在한 臟腑·經脈·氣血·病理 變化를 判斷하고, 脈診·舌診·耳診등津液등의 의 기타 韓醫學 診斷法과 같이, 疾病 診斷·證候 辨別·病機의 所屬 관찰로 病位의 所在, 病性의 寒熱 虛實, 病因인 氣滯, 血瘀, 水飲등을 판단하여 立法

論治 選方投藥, 治療效果 觀察 및 豫後 轉歸의 判斷등을 指導하는 作用이 있다. 동시에 腹部는 “五臟六腑之宮城, 陰陽氣血之發源”이 되어 胸腹部와 五臟六腑의 關係가 가장 密接하기 때문에, 腹診을 통해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客觀적으로 臟腑 經絡, 氣血 津液의 病理 變化를 반영할 수 있다. 더욱이 胸腹部 疾病의 診斷과 鑑別 診斷, 證候의 辨別, 治療 指導등의 方面에서 다른 診斷法이 대신할 수 없는 作用을 갖추고 있다.

最近 韓醫學的 診斷方法과 治療方法이 매우 강조되어 활발하게 研究가 계속 진행되면서 腹證辨證에 관한 관심이 매우 집중되고 있다. 이에 著者는 韓醫學的 診斷方法과 治療方法에 대한 研究의 한 一環으로써 金匱要略의 腹證에 관련된 內容을 整理해 보고자 한다.

II. 調査方法

- 1) 本 調査는 <金匱要略手冊>¹⁾中 腹證에 關한 內容을 整理하였다.
- 2) 金匱要略 條文의 出處와 部位에 따라 腹證을 分類하였다.
- 3) 篇數와 條文은 金匱要略手冊의 分類에 따랐다.

III. 本論 및 考察

1. 胸脇部 腹證

1) 胸滿, 咳滿, 喘滿, 心胸不安, 胸中窒, 欲踏胸上, 胸脇逆滿, 脇下支滿, 胸脇支滿, 胸脇滿

胸滿症은 가슴이 그득한 病症이다. 그 原因과 治方으로는 痙病으로 裏熱이 壅盛하여,

胸滿口噤일때는 大承氣湯, 濕病을 誤下傷陽하여, 濕이 上焦에 머무르면, 胸滿, 小便不利가 發하며, 心氣不足한데 邪氣가 들어오면 胸滿短氣하며, 肺癰邪實氣閉하여 咳而胸滿이면 桔梗湯, 肺癰痰熱壅滯하여 氣機不暢하여 咳而胸滿이면 桔梗白散, 肺癰病에 熱邪가 壅閉하여 氣機阻滯하면 肺癰胸脹滿이 發하는데는 葶藶大棗瀉肺湯, 胸痺로 痰濁壅塞하여 氣滯不通하는 胸滿에는 枳實薤白桂枝湯, 或人參湯, 水飲이 胸膈에 積滯하여 氣機阻滯하는 支飲胸滿은 厚朴大黃湯, 支飲病에 藥을 服用한 後 沖氣는 가벼워졌지만 支飲이 또 發할 때는 桂苓五味甘草湯去桂加乾薑 細辛, 黃汗 濕鬱上焦, 苦寒攻下하여 陽氣를 다시 傷하던 肺氣가 不宣한데 下하면 胸滿短氣한다. 黃疸에 火熱療法으로 發汗시켜 裏熱이 上熏되면 胸滿口燥하며, 瘀血證에 瘀血이 阻滯되어 氣機가 痞塞하면 病人은 胸滿하고, 瘀血證에 熱이 陰分에 潛伏하여 瘀血에 熱이 鬱滯되면 煩滿하고, 嘔하며 胸滿한 경우 茱萸湯으로 다스린다. 즉 胸滿은 陰病으로 風寒邪, 風熱邪, 氣滯, 水陰, 瘀血등이 胸部에 몰려서 發한다(표1).

支飲病이 다시 發病하여 肺氣가 不利하여 기침을 하고, 胸滿할때는 桂枝를 去하고 乾薑과 細辛을 加한 苓甘五味薑辛湯으로 그 咳와 胸滿을 다스리며, 苓甘五味薑辛湯을 服用하고나서, 胸滿은 좋아졌는데도 다시 胸滿이 마르고 沖氣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細辛, 乾薑이 熱藥이기 때문이다. 藥을 服用하고, 渴이 復發하는 것은 마땅하며, 藥을 服用하고, 渴이 멎는 것은 支飲 때문이다. 支飲은 반드시 머리가 어지럽고 嘔吐하게 되는데, 苓甘五味薑辛湯에 半夏를 加해서 支飲을 除去해야한다. 즉 咳滿은 支飲으로 因해서 發한다(표2).

1) 殷光周·王久源·吳潛智:金匱要略手冊, 重慶: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8

	出 處	病 症	治 方
胸 滿	一(十三)	師曰 咳上氣喘噎咽脹鳴脹滿心痛拘急	
	二(十三)	瘕爲病 胸滿口噤 臥不着席 脚攣急 必齟齒	大承氣湯
	二(十六)	濕家其人但頭汗出, 背強, …… 或胸滿, 小便不利, 胸上寒者, 渴欲得飲而不能飲, 則口燥煩也.	
	五(三)	寸口脈遲而緩, 遲則爲寒, 緩則爲虛, …… 心氣不足, 邪氣入中, 則胸滿而短氣.	
	七(十二)	咳而胸滿, 振寒, 脈數, …… 久久吐膿米粥者, 爲肺癰.	桔梗湯
	七(附)	咳而胸滿, 振寒, 脈數, …… 久久吐膿米粥者, 爲肺癰.	桔梗白散
	七(十五)	肺癰胸滿脹, 一身面目浮腫, 鼻塞清涕出, 不聞香臭酸辛, 咳逆上氣, 喘鳴迫塞	葶藶大棗瀉肺湯
	九(五)	胸痺心中痞氣, 氣結在胸, 胸滿, 脇下逆搶心	枳實薤白桂枝湯 人參湯
	十二(二十六)	支飲胸滿者	厚朴大黃湯
	十二(三十七)	沖氣即低, 反而更咳, 胸滿者	桂苓五味甘草湯 去桂加薑黃細辛
	十四(一)	黃汗其脈沈遲 身發熱 胸滿……必致癰膿	
	十四(六)	跌陽脈當伏, 今反緊, 本自有寒, 疝瘕, 腹中痛, 醫反下之, 下之即胸滿短氣	
	十五(八)	病黃疸, 發熱煩喘, 胸滿口燥者, ……從濕得之, 一身盡發熱而黃, 肚熱, 熱在裏, 當下之.	
	十六(篇名)	驚悸, 吐, 衄, 下血, 胸滿, 瘀病血脈證治	
	十六(十)	病人胸滿, 唇痿舌青, 口燥, …… 脈微大來遲, 腹不滿, 其人言我滿, 爲有瘀血.	
十六(十一)	病者如熱狀, 煩滿, 口乾燥而渴, 其脈反無熱, 此爲陰伏, 是瘀血也, 當下之		
十七(八)	嘔而胸滿者	茱萸湯	

<表 1> 胸滿

咳 滿	十二(三十七)	沖氣即低, 而反更咳……治咳滿	桂苓五味甘草湯去 桂加乾薑細辛
	十二(三十八)	咳滿即止, 而更復渴……嘔者復內半夏以去其水	

<表 2> 咳滿

喘滿	七(二)	問曰 病咳逆, 脈之何以知此爲肺癰? 當有膿血, 吐之則死, 其脈何類? 師曰 寸口脈微而數,…… 風舍于肺, 其人則咳, 口乾喘滿	
	十二(十一)	膈上病痰, 滿喘咳吐, 發則寒熱, 背痛腰疼, 目泣自出, 其人振振身閼劇, 必有伏飲	
	十二(十二)	夫病人飲水多, 必暴喘滿. 凡食少飲多, 水停心下. 甚者則悸, 微者短氣. 脈雙弦者寒也, 皆大下後喜虛. 脈偏弦者飲也.	
	十二(二十四)	膈間支飲, 其人喘滿, 心下痞堅, 面色黧黑, 其脈沈緊, 得之數十日, 醫吐下之不愈, 虛者, 即愈, 實者三日復發, 復與不愈者,	木防己湯 木防己湯去石膏加茯苓芒硝湯

<表 3> 喘滿

心胸不安	十五(十三)	穀疸之爲病, 寒熱不食, 食即頭眩, 心胸不安, 久久發黃而穀疸	茵陳蒿湯
------	--------	----------------------------------	------

<表 4> 心胸不安

胸中窒	十四(四)	身腫而冷 狀如周痺, 胸中窒, 不能食, 反聚痛, 暮躁不得眠, 此爲黃汗
-----	-------	---------------------------------------

<表 5> 胸中窒

欲蹈胸上	十一(七)	肝著, 其人常欲蹈其胸上, 先未苦時, 但欲飲熱	旋覆花湯
------	-------	--------------------------	------

<表 6> 欲蹈胸上

喘滿은 肺癰證에 營氣가 壅滯되어 肺의 氣를 막아서 口乾喘滿하게 되며, 伏飲證에 痰飲이 膈上에 潛伏하여 肺氣를 阻遏하면 滿喘咳吐하고, 痰飲病에 患者가 暴飲水하여 升降의 機能失常하면 반드시 喘滿이 나타나며, 支飲病에 水停心下하여 上迫于肺하면 患者는 喘滿한다(표 3).

穀疸의 病은 寒熱이 있어 飲食을 먹을 수 없는데 食事を 하면 濕熱이 上衝하여 頭眩, 心胸不安 久久發黃한다(표 4).

身體가 붓고 冷하고 마치 症狀이 周痺(病邪가 血脈중에 있어 上下로 돌아다녀 全身이

아프다)와 같고 胸部는 痞症을 나타내며 食慾이 없고 疼痛이 때 마디마디에 集中하여 밤이되면 심하여 잠을 이룰 수조차 없는데 이것이 黃汗이다(표 5).

肝著症은 肝臟氣血이 鬱滯되어 퍼지지 못하는 즉, 患者는 恒常 가슴을 눌러주기를 바란다. 이 苦痛이 일어내기 전에 따뜻한 飲食物을 取하려 한다. 이러한 病症은 旋覆花湯으로 다스린다(표 6).

腹中에 陽이 虛해 寒氣가 있기 때문에 腹鳴이나고, 꿍어질 듯이 아프며, 胸脇部까지

胸脇逆滿	十(十)	腹中寒氣, 雷鳴切痛, 胸脇逆滿, 嘔吐	附子粳米湯
脇下支滿	十二(六)	水在肝 脇下支滿 噎而痛	
胸脇支滿	十二(十六)	心下有痰飲 胸脇支滿 目眩	苓桂朮甘湯
胸脇滿	二十二(三)	婦人中風 發熱惡寒 經水適來 得之七八日 熱除脈遲 身涼和 胸脇滿 如結胸狀 譴語者 此爲熱入血室也. 當刺期門 隨其實而取之.	

<表 7> 胸脇滿

뺨치고 嘔吐하는 경우 附子粳米湯으로 다스리고, 水飲이 肝에 滯한 경우 肝經의 經脈이 胸脇部에 있기 때문에 脇下支滿하고, 재채기를 하면 脇腹이 땅기고 아픔을 느낀다. 心下에 痰飲이 있어 胸脇部가 膨滿하고, 眩氣症이 나고, 눈이 어지러운 症狀이 있을 때 苓桂朮甘湯으로 主治한다. 또한 婦人熱入血室症에 瘀血이 肝經絡에 있을 때 胸脇滿한다(표 7).

2) 胸痛

肺癰病에 熱邪가 壅閉하여 氣血이 막히어 기침을 하면 가슴이 隱隱하게 아프다. 肺痿는 기침을 하면 膿血이 나오고 脈은 數虛하다. 肺癰은 마른 기침을 하고 胸痛이 있으

며 脈은 滑數, 數實하다. 胸痺病 [胸痺의 症候는 가슴속이 잔뜩 매어 막히고, 喉中이 潤滑하지 않고 乾燥하며甚한 경우는 胸中이 땅겨 아프고 肌肉이 몹시 저리며, 쥐어 짜는 것처럼 아파 뒤로 젖힐 수도 앞으로 구부릴 수도 없고, 앞가슴의 皮膚가 아파서 손을 댈 수도 없다. 가슴이 막히고 呼吸이 가쁘며, 기침을 하면 아프고 괴로워서 식은땀을 흘리며 痛症이 등으로부터 팔에까지 通한다)은 邪正이 相搏하여 氣機가 不通한즉 胸痺而痛이다. 栝樓薤白白酒湯은 胸痺의 病으로 喘息咳唾와 胸背痛이 있으며 呼吸이 가쁘고 寸口脈이 沈遲하고 關上脈이 小緊한 경우 使用하며, 胸中에 冷氣가 쌓여서 陽氣不通하

胸痛	七(一)	問曰; 寸口脈數, 其人咳, 口中反有濁唾涎沫者何? 師曰; 爲肺痿之病. 若口中辟辟燥, 咳即胸中隱隱痛, 脈反滑數, 此爲肺癰, 咳嗽膿血 脈數虛者爲肺痿 數實者爲肺癰.	
	九(一)	師曰 夫脈當取太過不及 陽微陰弦 卽胸痺而痛 所以然者 責其極虛也. 令陽虛知在上焦 所以胸痺心痛者 以其陰弦故也	
	九(三)	胸痺之病 喘息咳唾 胸背痛 短氣 寸口脈沈而遲 關上小緊數	栝樓薤白白酒湯
	九(附九痛丸)	又治連年積冷 流注心胸痛 并冷衝上氣 落馬墜車 血疾等 皆主之.	九痛丸
	十一(五)	肝中寒者 兩臂不舉 舌本燥 喜太息 胸中痛 不得轉側 食則土而汗出也	

<表 8> 胸痛

胸痛	十二(二十一)	脈沈而弦者, 懸飲內通	
	十二(三十三)	夫有支飲家, 咳煩胸中痛者, 不卒死, 至一百日或一歲	十棗湯
	十四(二十一)	問曰; 病者苦水, 面目身體四肢皆腫, 小便不利, 脈之, 不言水, 反言胸中痛, 氣上沖咽, 狀如炙肉, 當微咳喘, 審如師言, 其脈何類?	
	十四(二十一)	師曰: 寸口脈沉而緊, 沉爲水, 緊爲寒, 沉緊相搏, 結在關元, 始時尚微, …… , 食飲過度, 腫腹如前, 胸脇苦痛, 象若奔豚, 其水揚溢 則浮咳喘逆. 當先攻擊沖氣 令止 乃治咳 咳止 其喘自差. 先治新病 病當在後.	
	十四(二十九)	黃汗之病, ……若身重, 汗出已輒經者, 久久必身潤 潤即胸中痛, 又從腰以上必汗出, 下無汗, 腰膕弛痛, 如有物在皮中狀, 劇者不能食, 身疼重, 煩躁, 小便不利, 此爲黃汗	桂枝加黃芪湯

<表 9> 胸痛

兩肢疼痛	十(一)	趺陽脈微弦, 法當腹滿, 不滿者必便難, 兩肢疼痛, 此虛寒從下上也	溫藥服之
------	------	------------------------------------	------

<表 10> 兩肢痛

여 心胸에 流注된 痛症에는 九痛丸으로 治療한다. 肝이 寒邪의 侵襲을 받아 肝氣가 鬱結되면 經絡이 不通하여 胸部가 아프고 覆上에서 되돌아 누을 수가 없으며 무엇을 먹으면 吐하고 嘔이 난다. 脈이 沈하고 弦한 것은 懸飲이 있으며 胸脇部內에 疼痛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支飲病에 水飲이 胸膈에 머물러서 陽氣가 不通하면 咳煩胸中痛한다. 水飲病에 陽氣가 虛衰하고 營衛運行이 不暢하여 도리어 가슴이 아프다. 水腫病에 下焦의 陰寒水氣가 衝脈을 따라 逆上하면 胸脇部에 疼痛을 느끼며 모양이 奔豚과 비슷하다. 黃汗病에 陽氣가 虛하고 濕氣가 盛하면 胸部의 陽氣가 퍼지지 못하여 肌肉이 실룩 실룩 떨리고 胸部가 아프다(표 8.9).

3) 兩肢痛·脇痛

趺陽脈이 微하고 弦한 것은 마땅히 腹滿

을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便秘가 되고 兩쪽 겨드랑이가 아프게 된다. 이것은 虛寒이 아래에서 위로 오르기 때문이다 (표 10).

寒邪가 肝經에 侵襲한 病은 寸口脈이 弦하고 脇下가 땅기며 아프고 오슬오슬 惡寒을 느낀다. 寒邪가 內結하면 氣機가 阻滯하여 脇下가 左든 右든 한쪽만 아프고 發熱하며 그 脈이 緊弦한 것은 寒 때문이다. 溫藥을 써서 攻下해야 하는바 大黃附子湯이 마땅하다. 寒疝으로 腹中痛하고 脇에까지 땅기고 아픈 경우 當歸生薑羊肉湯으로 다스린다. 肝이 風邪의 侵襲을 받으면 筋脈躁急하여 頭目暈하며 兩脇痛하며 이 때문에 걸을 때 尙上 등을 구부리고 단 것을 즐겨한다. 積, 聚, 穀氣에서 積은 五臟의 病이며 痛處가 나을 때까지 옮기지 않고, 聚는 六腑의 病으로

脇 痛	十(五)	寸口脈弦者, 卽脇下拘急而痛, 其人奮奮惡寒也.	
	十(十五)	脇下偏痛, 發熱, 其脈緊弦, 此寒也, 以溫藥下之	大黃附子湯
	十(十八)	寒疝腹中痛, 及脇痛裏急者	當歸生薑羊肉湯
	十一(四)	肝中風者, 頭目暈, 兩脇痛, 行常偃, 令人嗜甘	
	十一(二十)	問曰: 病有積, 有聚, 有穀氣, 何謂也? 師曰: 積者, 臟病也, 終不移, 聚者, 腑病也, 發作有時, 展轉痛移, 爲可治. 穀氣者, 脇下痛, 按之則愈, 復發爲穀氣.	
	十二(九)	留飲者, 脇下痛引缺盆, 咳嗽則轉甚	
	十四(二十一)	師曰: 寸口脈沈而緊, 沈爲水, 緊爲寒, 沈緊相搏, 結在關元, 始時尙微, 年盛不覺, 陽衰之後, 營衛相干, 陽損陰盛, 結寒微動, 腎氣相衝, 咽喉塞噎, 脇下急痛.	
	二十二(八)	婦人之病, 因虛, 積冷, 結氣, 爲諸經水斷絕, 至有歷年, 血寒積結 胞門寒傷, 經絡凝堅. 在上嘔吐涎唾, 久成肺癰, 形體損分. 在中盤結, 繞臍寒疝, 或兩脇疼痛, 與臟相連, 或結熱中, 痛在關元, 脈數無瘡, 肌若魚鱗, 時着男子, 非止女身	

<表 11> 脇痛

때때로 發作하며 痛處가 固定되지 않고 移動한다. 곡기는 협하통하고 按하면 아픔은 멈추지만 또 復發한다. 留飲은 肝經絡이 不和하여 脇下痛이 缺盆까지 뻗치고 기침을 하면 아픔이 더욱 甚하다. 寸口脈이 沈緊한 것은 沈한 것은 水氣病의 나타남이며 緊한 것은 寒邪가 있는 것이다. 水氣와 寒邪가 相搏하면 下焦의 關元部에 영기는데 처음에는 病狀이 輕微할 것이며 靑長時에는 自覺症狀이 없다. 體力이 衰하게 되면 營衛가 相爭해서 陽氣는 衰하고 陰氣는 旺盛하게 된다 그렇게되면 下焦에 凝結된 水氣와 寒氣가 슬슬 움직이고 腎氣가 上衝하여 咽喉部에 窒息感과 脇下가 땅기는 듯한 아픔이 나타난다.

婦人의 病은 虛損, 積冷, 鬱結한 氣에 따라

서 모든 經水가 斷絶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血分에 寒邪가 있어 胞門에 集結하여 寒邪가 經絡을 損傷함으로 일어난다. 邪氣가 上焦에 凝滯하면 가래침을 吐하게 되고 오래가면 肺癰이되며 身體는 야위게 된다 寒邪가 中焦에 凝結되면 寒疝을 불러 일으켜 배꼽주위가 冷痛하게 되며 또는 兩脇이 아프고 肝臟까지 뻗치게 된다(표 11).

4) 胸中冷

寸口脈이 微數한 것은 微는 衛氣가 不足하다 는 것이며 衛氣가 不足하면 榮氣도 虛弱하게 된다. 榮氣가 虛弱하면 血이 不足하고 榮衛氣가 虛弱하면 胸部에 冷感이 일어난다(표12).

2. 心下部 腹證

1) 心下堅, 心下痞, 心下悶, 心下痛, 按之濡

胸中冷	十七(四)	寸口脈微而數，微則無氣，無氣則營虛，營虛則血不足，血不足則胸中冷
-----	-------	----------------------------------

<表 12> 胸中冷

脈이 數弦한 것은 病邪가 旺盛하고 內臟이 寒한 것을 가르킴으로 마땅히 溫下法을 써야 하고 脈이 緊大하고 遲한 것은 臟이 寒하고 病邪가 實한 것이며 반드시 心下가 단단하다.

水飲이 心에 滯하여 있는 경우 心下에 氣가 막혀 通하지 않기 때문에 단단해지며 動悸가 있고 呼吸이 促急하며 물을 꺼리고 마시려 하지 않는다. 病者의 脈이 伏하고 下痢하려고 한다 下痢를 하면 오히려 氣分이 輕快해 진다 비록 下痢를 해도 心下部가 膨滿하고 단단한 것은 留飲이 사라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膈間에 支飲이 있는 患者는 숨이 차고 腹部가 膨滿하고 心下部에 단단한 옹어리를 느끼고 顔色은 검정을 띠고 脈은 沈緊하다. 水腫의 氣分症은 陽이 虛하고 陰이 凝

滯되어 升降受阻 하는 것이 氣分인데 心下가 단단해서 접시처럼 크고 변두리가 둥근 盃처럼 되어있다.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으로 다스린다. 心下가 단단하고 접시처럼 크고 변두리가 둥근 圓形인 것은 水飲에 依해서 일어나는 病으로 枳朮湯으로 다스린다. 下利病에 속에 實熱이 있으면 心下를 눌러봐서 단단한 것은 急하게 瀉下 하도록 해야 하는데 大承氣湯을 쓴다(표 13).

胸痺病에 痰涎이 滯滯하여 氣가 막혀 不通함으로 心中에 무언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 있다. 實證에는 枳實薤白桂枝湯 虛證에는 人蔘湯으로 主治한다. 心痛이 있고 胃가 답답하고 氣가 上逆하기 때문에 心窩部가 비게 되고 아프게 느끼게 되는 경우 桂枝生薑枳實湯을 쓴다. 瘦瘠한 사람이 배꼽주위에

心下堅	十(二十)	其脈數而緊乃弦，狀如弓弦，按之不移。脈數弦者，當下其寒，脈緊大而遲者，心下堅，脈大而緊者，陽中有陰，可下之。	
	十二(三)	水在心，心下堅築，短氣，惡水不欲飲。	
	十二(十八)	病者脈伏，其人欲自利，利反快，雖利，心下續堅滿，此爲留飲欲去故也	甘遂半夏湯
	十二(二十四)	膈間支飲，其人喘滿，心下痞堅，面色黧黑，其脈沈緊，得之數十日，醫吐下之不愈，虛者，即愈，實者三日復發，復與不愈者，	木防己湯。木防己湯去石膏加茯苓
	十四(三十一)	氣分，心下堅，大如盤，邊如旋杯，水飲所作，	桂枝去芍藥加麻黃細辛附子湯
	十四(三十二)	心下堅，大如盤，邊如旋盤，水飲所作	枳朮湯
	十七(三十七)	下利三部脈皆平，按之心下堅者，急下之，	大承氣湯

<表 13> 心下堅

心中(下)痞	九(五)	胸痺心中痞氣, 氣結在胸, 胸滿, 脇下逆搶心	枳實薤白桂枝湯 人參湯
	九(八)	心中痞, 諸逆心懸痛	桂枝生薑枳實湯
	十(八)	夫瘦人繞臍痛, 必有風冷, 穀氣不行, 而反下之, 其氣必沖, 不沖者, 心下則痞.	
	十二(三十)	卒嘔吐, 心下痞, 膈間有水, 眩悸者	小半夏加茯苓湯
	十七(十)	嘔而腸鳴, 心下痞者	半夏瀉心湯
	二十二(七)	婦人吐涎沫, 醫反下之, 心下即痞, 當先治其吐涎沫, 涎沫止, 乃治痞,	小青龍湯 瀉心湯

<表 14> 心中(下)痞

心下悶	二十一(八)	產後風續數十日不解, 頭微痛, 惡寒, 時時有熱, 心下悶, 乾嘔, 汗出, 雖久, 陽旦證續在耳.	陽旦湯
-----	--------	--	-----

<表 15> 心下悶

아픔이 있는 것은 風氣에 冷이 있어 飲食物이 停滯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반대로 瀉下法을 쓰면 風冷의 氣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心下가 결리게 된다. 갑자기 嘔吐가 나고 心下에 웅어리를 느끼며 胸腹사이에 水氣가 停留하고 眩氣症과 動悸 등이 나타나는 경우 小半夏加茯苓湯으로 다스린다. 婦人病으로 吐하고 침을 흘리고 있는 경우 이것은 上焦에 寒이 있어서 그런 것이므로 溫해야 하는데 醫師가 도리어 瀉下法으로 治療하면 心下部가 막히는 듯 답답함을 느낀다 이때 小青龍湯으로 吐涎沫을 治療하고 涎沫이 멎으면 瀉心湯으로 痞症을 治療한다(표 14).

產後風에 걸려서 數十日이 經過해도 낫지 않고 若干의 頭痛 惡寒하고 때때로 열이 있으며 心下部에 不快感이 있고 헛구역질을 하며 땀이 나는 등의 症狀이 있는 경우 비록 오래되었다고는하나 陽旦證이 存在하고 있으므로 陽旦湯으로 다스린다 (陽旦證은 太陽證 즉 表證을 말한다.) (표 15).

邪氣가 陽明(胃)에 停滯되어 있는 경우 心下部를 만져보면 膨滿해 있으며 痛症을 呼訴하는 것은 實證이므로 마땅히 下法을 使用해야 한다 大柴胡湯을 쓴다. 妊娠養胎때 心下部가 매우 아플 때 白朮散을 쓴다(표 16)

下利를 한 後 煩의 症狀이 다시 일어나고 心下를 눌러보면 軟한 경우는 虛煩이다 이때는 梔子豉湯으로 治療한다(표 17).

3. 腹部 腹證

1) 腹脹滿, 腹脹, 腹滿

虛寒下利에 患者에 表證이 있더라도 發汗시키면 안된다 잘못하여 發汗을 시키면 脾胃의 陽氣가 損傷되어 發汗을 하면 반드시 脹滿을 일으킨다.

下利 腹脹滿하고 身體가 아픈 경우 먼저 속을 溫하게 하고 그後에 表를 治한다. 溫裏에는 四逆湯 攻表에는 桂枝湯을 使用한다(表 18).

갑자기 배가 불러지는 경우 이것은 病狀이 好轉되는 證據이다. 脈은 여전하나 反對로 伏弦한 脈은 痙病이다 九痛丸은 卒中惡腹

心下痛	十(十二)	按之心下滿痛者, 此爲實也, 當下之	大柴胡湯
	二十(十白朮散)	心下毒痛	白朮散

<表 16> 心下痛

按之濡	十七(四十四)	下利後更煩, 按之心下濡者, 爲虛煩也	梔子豉湯
-----	---------	---------------------	------

<表 17> 按之濡

腹脹滿	十七(三十三)	下利清穀, 不可攻其表, 汗出必脹滿.	
	十七(三十六)	下利腹脹滿, 身體疼痛者, 先溫其裏, 乃攻其表	溫裏 四逆湯 攻表 桂枝湯

<表 18> 腹脹滿

腹滿의 症狀을 治療한다. 中惡病으로 腑의 氣가 不通해서 心痛, 腹脹이 있고, 大便不通할 때 走馬湯으로 治療한다. 女勞疸에서 瘀血의 濁한 氣運이 內停하면 腹部가 內部에 물이 있는 것처럼 膨脹하여 커진다 女勞疸에 腹滿者는 難治다(表 19).

中風으로 胃腸의 氣가 滯하여 腹滿인 경우 三黃湯에 枳實 一枚을 加한다. 男子의 脈이 虛하되 沈弦하고 惡寒 發熱이 없으나 呼吸이 促急하고 裏急하며 小便不利하고 얼굴은 蒼白하고 때때로 눈이 아물아물 잘 보이지 않고 코피가 나며, 아랫배가 膨脹한 경우는 勞에 起因한 것이다. 즉 虛勞에 氣化不利하면 少腹滿한다. 虛勞病의 患者로서 脈이 沈, 小, 遲할 때 脫氣라고 한다. 그 사람은 달음박질을 하면 숨이 차서 헐떡이며 목이 쉰다. 또

手足에서 차차 위로 冷해 올라오며 腹滿症이 나타나고 甚한 경우 下痢를 한다. 이는 飲食이 消化되지 않은 것이다. 五勞로 因하여 몹시 衰弱해져 身體가 몹시 아위고 腹滿하여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다. 食傷, 優傷, 飮傷, 房室傷, 飢傷, 勞傷이 原因이다. 이러한 原因으로 經絡과 營衛가 傷하게 되고, 그것으로 因해 瘀血이 滯留하게 되어 皮膚가 거칠어지고 두눈이 흐리멍덩하며 눈주위가 검게된다. 이런 경우 瘀血을 驅逐하고 衰弱한 곳을 補해 주어야 한다. 이때 大黃蠅蟲丸을 쓴다. 跌陽脈이 微하고 弦한 것은 마땅히 腹滿을 일으키는데 腹滿하지 않다면 반드시 便秘가 되고 양쪽 거드랑이가 쑤시고 아프다. 이것은 下焦의 虛寒이 아래로부터 위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溫藥을 服用해야 한다.

腹脹	二(八)	痙暴腹脹大者, 爲欲解. 脈如故, 反伏弦者痙	
	九(附九痛丸)	卒中惡, 腹脹痛.	九痛丸
	十(二十附走馬湯)	中惡心痛腹脹, 大便不痛	走馬湯
	十五(十四)	黃家日晡所發熱, 而反惡寒, 此爲女勞得之, 膀胱急, 少腹滿, 身盡黃, 額上黑, 足下熱, 因作黑疸, 其腹脹如水狀, 大便必黑, 時溇, 此女勞之病, 非水也. 腹滿者難治	礪石礬石散

<表 19> 腹脹

腹 滿	五(附三黃湯)	中風, 胃腸氣滯 腹滿加枳實一枚	三黃湯
	六(五)	男子脈虛沈弦, 無寒熱, 短氣裏急, 小便不利, 面色白, 時目瞑, 兼衄, 少腹滿, 此爲勞使之然.	
	六(十一)	脈沈小遲, 名脫氣, 其人疾行則喘, 手足逆寒, 腹滿, 甚則瀉泄, 食不消化也	
	六(十八)	五勞虛極羸瘦, 腹滿不能飲食, 食傷, 憂傷, 飲傷, 房室傷, 飢傷, 勞傷, 經絡營衛氣傷, 內有乾血, 肌膚甲錯, 兩目黯黑, 緩中補虛	大黃蟅蟲丸
	十(篇名)	腹滿寒疝宿食病脈證治.	
	十(一)	跌陽脈微弦, 法當腹滿, 不滿者必便難, 兩脇疼痛, 此虛寒從下上也.	溫藥服之
	十(二)	病者腹滿, 按之不痛爲虛, 痛者爲實, 可下之, 舌黃未下者, 下之黃自去	
	十(三)	腹滿時減, 復如故, 此爲寒.	溫藥
	十(九)	病腹滿, 發熱十日, 脈浮而數, 飲食如故	厚朴七物湯
	十(十三)	腹滿不減, 減不足言, 當須下之.	大承氣湯
	十二(二十九)	腹滿, 口舌乾燥, 此腸間有水氣.	己椒藶黃丸
十四(一)	石水其脈自沈, 外證腹滿不喘.		

<表 20> 腹滿

患者가 복만이 있는 경우 눌러서 아프지 않는 경우는 虛이고, 눌러서 아픈 경우는 實이다. 이것은 下法으로 다스려야 한다. 혀에 黃苔가 있는 경우는 아직 下法을 쓰지 않은 경우이고, 下法을 쓰면 黃苔도 없어진다. 복만이 때때로 가벼워졌는지 하면 다시 原狀으로 돌아가는 것은 寒때문이므로 마땅히 溫藥을 사용해야 한다. 腹滿을 앓고 있는데 發熱하기 十日이 지나고 脈은 浮數하고 飲食에는 달라짐이 없는 경우 厚朴七物湯으로 다스린다. 腹滿의 症勢가 나아지지 않거나 나아졌다해도 말할 수 없을 정도 일 때 마땅히 瀉下法을 사용해야하며 마땅히 大承氣湯을 사용한다. 腹滿하고 口舌이 乾燥한 것은 腸間에 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己椒藶黃湯으로 다스린다(표 20).

石水는 그 脈이 沈하며 外證은 腹滿이 있

으나 喘息은 없다. 물기를 하리한후 渴하여 물을 마시고도 小便不利하고 陰部가 붓는 것은 어떤 일인지? 답하기를 이것은 勿論 水氣病이다. 만약 小便이 잘 나온다면 지땀이 나온다면 하면 스스로 治癒된다. 脾胃不和하고 營衛不利하면 腹滿과 腸鳴이 차례로 일어난다. 黃疸病에 脾가 虛寒하면 消化物의 傳導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飲食을 먹으면 腹滿이 있다. 陽明病에 맥이 지한자는 飲食을 充分히 먹을 수 없다. 充分이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小便은 반드시 難하다. 이것은 穀疸이 되려는 것인데 비록 瀉下法을 써도 腹滿은 그대로다. 그것은 脈이 遲한 까닭이다. 酒黃疸은 또는 熱이 없고 말이 조용한 경우도 있다. 腹滿이 있고 吐하려 하고 코가 乾燥하다. 그 脈이 浮한 경우는 먼저 吐하게 하고 沈弦한 경우는 먼저 下해야 한

腹滿	十四(十二)	問曰：病下利後，渴飲水，小便不利，腹滿因腫者，何也？ 答曰：此法當病水，若小便自利及汗出者，自當愈。	
	十四(三十)	師曰：寸口脈遲而澁，遲則爲寒，澁爲血不足，… … 寒氣不足，則足逆冷；手足逆冷，則營衛不利；營衛不利，則腹滿腸鳴相逐：… … 陰前通則痺不仁，陰陽相得，其氣乃行，大氣一轉，其氣乃散；實則失氣，虛則遺溺，名曰氣分。	
	十五(二)	跌陽脈緊而數，數則爲熱，熱則消穀，緊則寒，食卽爲滿	
	十五(三)	陽明病，脈遲者，食難用飽，飽則發煩頭眩，小便必難，此欲作穀疸。雖下之，腹滿如苦，所以然者，脈遲故也。	
	十五(五)	酒黃疸者，或無熱，睛言了了，腹滿欲吐，鼻燥，其脈浮者先吐之，沈弦者先下爲之。	
	十五(十四)	黃家日晡所發熱，而反惡寒，此爲女勞得之，膀胱急，少腹滿，… … 因作黑疸，其腹脹如水狀，大便必黑，時漉，此女勞之病，非水也。	硝石礬石散
	十五(十九)	黃疸腹滿，小便不利而赤，自汗出，此爲表和裏實，當下之	大黃硝石湯

<表 21> 腹滿

다. 黃疸는 저녁 무렵에 發熱하는것이 常例인데 도리어 惡寒한는 것은 房事過度에 依해서 얻은 것이다. 膀胱이 땅기는 듯하고 아랫배가 膨滿하고 全身은 노랗고 이마 위는 검게되며 발바닥은 熱이 있어 그 때문에 黑疸이 된다. 腹部는 內部에 물이 있는 것처럼 부풀지만 大便은 반드시 검게되는데 때로는 軟便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女勞疸이지 水氣病은 아니다. 女勞疸로서 腹滿者는 難治다. 硝石礬石散으로 다스린다. 黃疸복만하고 小便不利하고 色이 붉으며 自汗出하는 것은 實熱이 內結해 있으므로 마땅히 攻下해야 한다. 大黃硝石湯을 使用한다(표 21).

黃疸病에 小便色은 不變이며, 下痢를 하고 싶고, 腹滿하며 숨이 잘 때 解熱을 하면 안 된다. 瀉下하면 熱은 除去되지만 반드시 脾胃虛寒으로 딸국질을 한다. 이때 小半夏湯으로 다스린다. 患者가 胸滿하며 입술이 麻痺되어 말을 잘 못하며, 혀는 푸르고 입은 乾

燥하며 다만 물로 입을 적시고 마시지는 않으며 寒熱이 없고 脈은 微大하며 遲하고 腹不滿인데 腹滿하다고 呼訴하는것은 瘀血 때문이다. 딸국질을 하고 腹滿일 때 大小便을 살펴보아 어느 것이 通하지 않는지를 살펴 通하게 하면 治愈된다. 妊娠중에 傷寒을 앓아 腹滿하고 小便이 通하지 않게 되고 허리 아래가 무거운 것이 水氣의 症狀과 같은 것은 妊娠 7個月에 마땅히 養해야하는데 養하지 않는 것은 心氣가 實하기 때문에 마땅히 勞宮과 關元에 刺鍼하여 小便이 약간 좋아지면 낫게 된다. 婦人의 衝任脈이 虛寒하고 少腹에 瘀血이 남아 있으면 腹滿한다. 溫經湯으로 다스린다. 帶下에 經水不利하고 少腹滿痛하며 月經이 한 달에 두 번 있는 경우 土瓜根散으로 다스린다. 婦人의 아랫배가 마치 사발을 엮어놓은 것처럼 膨滿하고 小便은 약간 어려우며 渴症이 없이 出産後에 나타나는 경우는 水邪와 瘀血이 子宮에 凝結되어

腹 滿	十五(二十)	黃疸病, 小便色不變, 欲自利, 腹滿而喘, 不可除熱, 熱除必噦, 噦者	小半夏湯
	十六(十)	病人胸滿, 脣痿舌青, 口燥, 但欲漱不欲咽, 無寒熱, 脈微大來遲, 腹不滿, 其人言我滿 爲有瘀血.	
	十七(七)	噦而腹滿, 視其前後, 知何部不利, 利之即愈	
	二十(十一)	婦人傷胎, 懷身腹滿, 不得小便, 從腰以下重, 如有水氣狀, 懷身七月, 太陰當養不養 此心氣實, 當刺瀉勞宮及關元, 小便微利則愈.	
	二十二(九)	問曰: 婦人年五十所, 病下利數十日不止, 暮即發熱, 少腹裏急, 腹滿, 手掌煩熱, 唇口乾燥, 何也? 師曰: 此病屬帶下, 何以故? 曾經半產, 瘀血在少腹不去, 何以知之? 其證唇口乾燥, 故知之.	溫經湯
	二十二(十)	帶下經水不利, 少腹滿痛, 經一月再見者	土瓜根散
	二十二(十三)	婦人少腹滿如敦狀, 小便微難而不渴, 生後者, 此爲水與血俱結在血室也.	大黃甘遂湯

<表 22> 腹滿

있기 때문이다. 大黃甘遂湯으로 다스린다(표 22).

2) 腹大, 腹重, 如腫狀

水氣病중에 皮水는 脈은 또한 浮하고 外證은 浮腫이다. 늘려보면 손가락이 파묻힐 정도로 들어가고 腹部는 북처럼 膨滿하고 渴하지 않다. 마땅히 發汗法으로 發散한다. 무릇 水氣病 患者는 눈빛이 불룩하고 顔面이 뚜렷하게 光澤이 있고 脈은 伏하고 消渴의 症狀이 있다. 水氣病은 腹部가 膨滿하고 小便不利하고 脈이 沈絶한 것은 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下하는 方法이 좋다. 肝水者는 腹部가 膨滿하고 스스로 돌아눕지 못하며 脇下 腹痛하며 口속에서는 津液이 생겨나고 小便은 잘 疏通하는 症狀이다. 이는 肝病이 乘脾해서 脾失健運하기 때문이다. 脾水者는 脾主 大腹 및 四肢인데 脾가 運化轉輸 機能을 상실해서 水氣內停外溢 때문에 腹大, 四肢沈重하며, 脾不散精으로 津液이 不生해서 口乾하

며, 脾虛中氣不足으로 短氣한다.

腎水病은 腎陽虛로 因해서 不能化氣行水이므로 水氣泛濫해서 內聚腹中而 腹脹大하며 臍部가 부어 突出하고, 腰痛, 尿不利하며, 陰下가 濕하고, 발에서부터 冷해 올라오며 腎虛해서 精氣不能上營于面으로 얼굴은 도리어 消瘦하다(표 23)

脾中風病은 風邪가 脾를 犯한 까닭이다. 風은 陽邪이므로 갑자기 發熱해서 마치 술에 취한 사람같고 腹中이 화끈거리며 무지근하고 皮膚와 눈이 쉼룩거리고 呼吸이 가빠진다. 腎著病의 病因 病位 症狀 및 治法이 있다. 腎著는 自覺症狀으로 身體가 무겁고, 腰腹部가 더구나 甚하며, 또한 腰以下는 冷痛이다. 病因의 形體는 浮腫이며, 水氣病은 渴하면서 小便不利이나, 渴하지 않고 小便自利이며, 飲食은 平常時와 같다. 下焦의 病이다. 勞動汗出에 衣服의 속은 濕해서 冷하고 그것이 오래가면 發病한다. 溫經散寒하며 暖土除濕해야한다(표 24).

腹大	十四(一)	皮水其脈亦浮, 外證附腫, 按之沒指, 其腹如鼓, 不渴, 當發其汗.
	十四(十一)	夫水病人, 目下有臥蠶, 面目鮮澤, 脈伏, 其人消渴. 病水腹大, 小便不利, 其脈沈絕者, 有水, 可下之.
	十四(十四)	肝水者, 其腹大, 不能自轉側, 脇下腹痛, 時時津液微生, 小便續通
	十四(十六)	脾水者, 其腹大, 四肢苦重, 津液不生, 但苦少氣, 小便難.
	十四(十七)	腎水者, 其腹大, 臍腫腰痛, 不得溺, 陰下濕如牛鼻上汗, 其足逆冷, 面反瘦

<表 23> 腹大

腹重	十一(十三)	脾中風者, 翕翕發熱, 形如醉人, 腹中煩重 皮目瞶瞶而短氣	
	十一(十六)	腎著之病, 其人身體重, 腰中冷, 如坐水中, 形如水狀, 反不渴, 小便自利, 飲食如故, 病屬下焦, 身勞汗出, 衣裏冷濕, 久久得之, 腰以下冷痛, 腹重如帶 五千錢	甘薑苓朮湯

<表 24> 腹重

이마 部位가 검고 微汗이 나며 손발에 熱이 있으며 저녁 무렵 發熱하며 膀胱이 땅기는 듯하며 小便自利하는 것을 女勞疸이라 한다. 腹部가 물이 찬 것 같이 膨滿한 것은 不治이다. 이는 脾腎이 모두 損傷됐기 때문이다. 腸癰의 症狀는 皮膚가 나무껍질처럼 거칠고 腹部의 皮膚가 膨膨하다. 만져보면 부드럽고 腫기가 있는 것처럼 부어 있으나 積聚는 없으며 몸에 熱이 없으나 脈은 數하다. 이것은 腸內에 癰膿이 있는 것으로 薏苡附子敗醬散으로 다스린다.

腸癰者는 十八(四)아랫배가 붓고 단단한 응어리가 있어 손으로 누르면 淋病에서와 같이 陰部에까지 뻗치는 아픔이 있으나 小便은 平常時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發熱하며 땀이 나지만 또 惡寒한다. 그脈이 遲緊한 者는 膿이 생기지 않은 것이므로 下法을 쓰는 것이 좋다. 반드시 血을 下 할 것이다. 脈이 洪數한 者는 膿이 이미 생긴 것이므로 下法을 쓰면 안된다 이런 경우 大黃牡丹皮湯을 쓴다 <표 25>.

3) 少腹拘急

臟腑의 內에 있는 病을 陰病이라 하는데 腸鳴, 脹滿, 心痛, 拘急이다. 失精家(患遺精病久不愈的人)는 腎精을 過多하게 消耗해서 陰陽이 兩虛해서 아랫배가 땅기고, 陰莖前部가 冷하며 어지럽고 머리카락이 脫落한다. 脈이 아주 虛하여 遲하고 清穀(大便完穀不和), 失血, 遺精등이 나타난다. 脈이 芤, 動, 微, 緊 하면 남자의 경우 遺精病이며, 女子의 경우 夢交이다. 滋陰和陽하고, 固精守神하는 桂枝龍骨牡蠣湯으로 다스린다. 虛勞病에 裏急(腹內拘攣不舒)과 疼痛은 勞傷中陽으로 裏寒收引함으로 氣機가 凝滯되서 發生 한다. 이 때문에 陽失陰護로 不能內守하기 때문에 衄血, 夢遺滑精한다. 또 精血이 모두 虛해서 心神失養이 心悸, 津液이 위로 흐르지 못해 咽乾口燥하고, 陰虛陽浮로 手足煩熱하고, 四肢에 陽氣陰血이 充分하게 供給하지못해 痲痛한다. 이때 溫建中氣하는 小建中湯을 쓴다. 虛勞裏急과 諸不足(臟腑氣血陰陽 虧虛) 할 때 黃芪建中湯을 使用한다. 虛勞病의 腎氣虧虛의 證治로 虛勞病 患者가 勞傷腎氣하

如腫狀	十五(二)	額上黑, 微汗出, 手足中熱, 薄暮即發, 膀胱急, 小便自利, 名曰女勞疸, 腹如水狀 不治.	
	十八(三)	脹癰之爲病, 其身甲錯, 腹皮急, 按之濡, 如腫狀, 腹無積聚, 身無熱, 脈數, 此爲脹內有癰膿	薏苡附子敗醬散
		脹癰者, 少腹腫痞, 按之即痛如淋, 小便自調, 時時發熱, 自汗出, 復惡寒. 其脈遲緊者, 膿未成, 可下之, 當有血. 脈洪數者, 膿已成, 不可下也	大黃牡丹皮湯

<表 25> 如腫狀

여 眞陽眞陰이 모두 虛하여 外腑를 溫養하지 못해서 腰痛이 나타나며, 동시에 腎陽이 虧虛해서 下焦의 溫氣運을 상실하여 少腹拘攣 急迫하다. 또한 腎과 膀胱은 表裏關係이므로

腎陽이 膀胱의 化氣行水를 돕지 못해 小便不利한다. 이때 八味腎氣丸을 使用한다. 寒症病은 腹中에서 脇部까지 멎기고 아픈 病人데 이것은 患者가 原來 血虛한데 다시 外寒에

少腹拘急	一(十三)	陰病十八, 何謂也? 師曰: 咳, 上氣, 喘, 噎, 咽, 腸鳴, 脹滿, 心痛, 拘急	
	六(八)	夫失精家 少腹弦急, 陰頭寒, 目眩, 發落, 脈極虛 芤遲, 爲清穀, 亡血, 失精. 脈得 諸芤動微緊, 男子失精, 女子夢交	桂枝龍骨牡蠣湯
	六(十三)	虛勞裏急, 悸, 衄, 腹中痛, 夢失精, 四肢痠疼, 手足煩熱, 咽乾口燥	小建中湯
	六(十四)	虛勞裏急, 諸不足	黃芪建中湯
	六(十五)	虛勞腰痛, 少腹拘急, 小便不利者,	八味腎氣丸
	十(十八)	寒疝腹中痛, 及脇痛裏急者,	當歸生薑羊肉湯
	十三(七)	淋之爲病, 小便如粟狀, 小腹弦急, 痛引臍中	
	十八(三)	脹癰之爲病, 其身甲錯, 腹皮急, 按之濡, 如腫狀, 腹無積聚, 身無熱, 脈數, 此爲脹內有癰膿	薏苡附子敗醬散
	二十一(附)	治婦人產後虛羸不足, 腹中刺痛不止, 吸吸少氣, 或苦少腹中急, 摩痛引腰背, 不能飲食.	內補當歸建中湯
	二十二(九)	問曰: 婦人年五十所, 病下利數十日不止, 暮即發熱, 少腹裏急, 腹滿, 手掌煩熱 唇口乾燥, 何也? 師曰: 此病屬帶下. 何以故? 曾經半產, 瘀血在少腹不去, 何以知之? 其證唇口乾燥, 故知之	溫經湯

<表 26> 少腹拘急

腹痛	一(三)	問曰：病人有氣色見于面部，願聞其說。師曰：鼻頭色青，腹中痛，苦冷者死	
	六(十三)	虛勞裏急，悸，衄，腹中痛，夢失精，四肢酸疼，手足煩熱，咽乾口燥，	小建中湯
	八(二)	奔豚氣上衝胸，腹痛，往來寒熱	奔豚湯
	十(十一)	痛而閉者	厚朴三物湯
	十(十七)	腹痛，脈弦而緊，弦則衛氣不行，即惡寒，緊則不欲食，邪正相搏，即為寒疝。寒疝繞臍痛，若發則白汗出，手足厥冷，其脈沈緊者	大烏頭煎

<表 27> 腹痛

腹痛	十(十八)	寒疝腹中痛，及脇痛裏急者	當歸生薑羊肉湯
	十(十九)	寒疝腹中痛，逆冷，手足不仁，若身疼痛，灸刺諸不能治	烏頭桂枝湯
	十(二十附)	治心腹卒中痛者	柴胡桂枝湯
	十四(六)	跌陽脈當伏，今反緊，本自有寒，疝瘕，腹中痛，醫反下之，下之即胸滿短氣，	
	十四(十四)	肝水者，其腹大，不能自轉側，脇下腹痛，時時津液微生，小便續痛，	

<表 28> 腹痛

感染되어 寒邪가 入裏하여 肝脾를 犯했기 때
문이다. 肝主兩脇, 脾主大腹, 血虛經脈失濡하
므로 寒이 甚하면 經脈이 攣急한다. 補血散
寒하는 當歸生薑羊肉湯으로 治療한다. 石淋
病은 淋病 發病時 小便中에 조그마한 쌀모양
의 모래 粒子를 排出하여 小腹內에 拘攣되어
痛症이 臍中까지 響친다. 腸癰病 患者는 全
身의 皮膚가 나무껍질처럼 거칠고, 腹壁이
팽팽해지며 局部的으로 腫氣가 있는 것처럼
부어있으나 손으로 눌러보면 柔軟하며, 積聚
모양의 딱딱한 腫氣는 없으며 몸에 熱도 없
고, 毒熱이 血分에 있을 때 脈은 數象이다.
이는 除濕清熱, 解毒散結, 排膿消癰하는 薏苡
附子敗醬散을 使用한다. 內補當歸建中湯은
婦人이 出産後 매우 虛弱해서 氣血不利하여
瘀血이 생긴즉 腹中刺痛不止하며, 衝任督帶

內虛즉 少腹中級, 摩痛(隱痛不定之意)引腰背
하고, 脾氣虛 즉 吸吸少氣(氣短微喘之狀), 不
能飲食한다. 婦人이 五十歲 가량되면 腔의
出血이 數十日이 되어도 멈추지 않고 저녁때
가 되면 發熱하며 少腹部가 땅기며 더부룩하
고, 腹滿하며, 손바닥이 煩熱하며 입술이나
입이 乾燥해지는 것은 무슨 病에 말미암은
것입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이는 婦人科 疾
患이다. 이 病의 原因은 무엇인가 하던 以前
에 流産을 한 일이 있는 婦人에게 少腹部의
瘀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瘀血
이 없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지? 그것
은 患者의 口唇의 乾燥를 보고서 診斷할 수
있다. 溫經湯으로 다스린다(표26).

4) 腹痛, 少腹堅痛, 少腹脹痛, 腹中疝痛, 腹
中絞痛, 腹中刺痛, 雷鳴切痛

문기를 患者의 氣色(面部の 光澤과 顔色에서 正常과 異常의 가려 냄)이 나타난다는 데 그에 관해서 說明을 願합니다. 스승이 說明하기를 鼻頭가 푸른 것은 寒이 氣血에 滯滯해 있기 때문에 腹中痛이 있다. 여기에 痛冷 症狀이 加해지면 죽을 염려가 있다. 虛勞病으로 腹中이 사르르 아프며 땅기며 動悸가 있고 코피가 나오며 夢精을 하며 四肢가 쭈시고 아프며 手足에 煩熱이 있고 목구멍과 입안이 모두 乾燥한 경우 小建中湯을 使用한다. 奔豚氣病 發作時 逆氣로 少腹에서 胸部로 치밀어 올라가서 腹內疼痛이 있고 때로는 發冷 때로는 發熱한다. 이런 理由로 情志가 傷해 肝氣鬱結하여 火가 上逆한 所致이다. 奔豚湯을 쓴다. 腹部脹滿疼痛者는 大便閉結 不通하고 이런 理由로 邪熱과 積滯內阻하여, 氣滯不行의 所致다. 마땅히 厚朴三物湯으로 治한다. 腹中疼痛 患者는 脈이 弦하며 緊하다. 弦은 衛氣가 循行하지 못하게 되어 곧 惡寒한다. 한편 緊한 것은 陰氣가 盛하고 胃가 寒인 脈이므로 食欲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寒邪와 正氣가 相搏하여 弦緊의 脈狀은 곧 寒疝이 된다. 寒疝의 症狀은 배꼽주위가 아프고 寒疝이 發할 때 식은땀이 흐르고 手足으로부터 冷이 逆上한다. 그 脈이 沈緊한 경우 大烏頭煎으로 다스린다(표 27).

寒疝病으로 腹中에서 脇部까지 疼痛하며 땅기는 경우 當歸生薑羊肉湯으로 다스린다. 이는 患者가 原來 血虛한데 다시 外寒에 感染되어 寒邪가 入裏해 肝脾를 犯한 所致이다. 寒疝病患者가 腹中疼痛하고 四肢發冷하며 手脚麻木 하며 만약 身體疼痛이 나타나면 灸와 刺鍼 一般藥物 治療모두가 無效이다. 이는 離寒이 아주 盛하여 陽氣가 不振하여 四肢에 퍼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溫陽散寒하며 解肌定痛하는 烏頭桂枝湯으로 다스린다. 갑자기 外邪를 받아서 생긴 心腹中疼痛者는 柴胡桂枝湯을 使用한다. 跌陽脈은 마땅히 伏해야 하는데 지금은 反對로 緊한 것은 身體의 內部에 寒邪가 있기 때문이다. 疝瘕(少腹部가 熱을 띠고 아프며 尿道에서 흰

빛의 粘液이 流出하는 病症을 말한다.)를 治療해야 하는데 腹中痛이라고 醫師가 下法을 쓰면 胸滿하며 呼吸이 急하다. 肝水證은 肝의 疏泄作用을 相失하여 脾의 轉輸作用이 影響을 받아 水氣가 不行한 理由로 腹中에 積聚가 있어 스스로 돌아누울 수 없으며 水가 肝絡을 侵犯하여 氣機를 펼 수가 없어서 脇下과 腹內가 疼痛한다. 病이 아직 肝에 있고 肺腎에 도달하지 않았기에 肺腎이 쉽게 津液을 供給하여 化氣하므로 입안의 津液이 나와서 燥渴이 없으며 小便이 잘 通한다(표 28).

風水病者는 脈이 浮한 것은 風邪가 表에 있는 것이고, 身重은 水가 肌腠에 侵襲해 있는 것이다. 汗出惡風은 表虛衛外不固이므로 防己黃芪湯을 使用하고 腹痛者는 芍藥을 加한다. 黃疸은 濕熱이 脾胃中焦에 쌓여 있고 膽胃는 서로 가까이 있으며 三焦와 膽은 서로 表裏이며 또 脾胃와 關係가 있다. 그런 까닭으로 그 邪氣가 쉽게 少陽을 侵犯해서 嘔吐와 腹痛을 생겨난다. 和解하는 小柴胡湯을 使用한다. 腹痛이 있는 경우 腹中에 蟲의 有無를 脈을 봐 判別하는 方法이 있습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腹中에 蟲이 있을 경우 그 脈은 마땅히 沈或 弦인데 反對로 洪大할 경우 蠅蟲이 있다. 婦人이 妊娠한지 六, 七個月이 되어 脈이 弦하고, 發熱하며 其胎愈脹(妊娠末期에 腹部가, 膨脹하여 무거워진다는 뜻)하고 腹痛 惡寒이 있는 경우, 少腹이 冷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子宮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마땅히 附子湯으로 子宮을 따뜻하게 하여야 한다. 妊娠중 養胎하기 위해서는 和血溫中하는 白朮散을 쓴다. 腹痛으로 苦痛을 당하는 경우 芍藥을 가한다(표 29).

產後惡露가 不淨하여 쉽게 瘀血이 形成되며, 血凝하면 氣 역시 滯한다. 氣血凝滯하면 腹痛而 脹滿한다. 이런 理致로 心煩하고 安臥하지 못한다. 枳實芍藥散으로 氣血의 結滯를 通해야 한다. 氣血凝滯로 因한 產後腹痛者는 마땅히 枳實芍藥散으로 治療해야 한다. 만약 服用後에도 治療하지 않으면, 瘀血이 臍下에 凝結하여 滯해 있기 때문이며 그 痛

腹痛	十四(二十二)	風水, 脈浮身重, 汗出惡風者, 腹痛者	防己黃芪湯 加芍藥
	十五(二十一)	諸黃, 腹痛而嘔者	柴胡湯
	十九(五)	問曰: 腹痛有虫, 其脈何以別之? 師曰: 腹中痛, 其脈當沈若弦, 反洪大, 故有蚘虫.	
	二十(三)	婦人懷娠六七月, 脈弦發熱, 其胎愈脹, 腹痛惡寒者, 少腹如扇, 所以然者, 子藏開放也.	附子湯
	二十(十)	妊娠養胎, 但苦痛者,	白朮散 加芍藥

<表 29> 腹痛

腹痛	二十一(五)	產後腹痛, 煩滿不得臥	枳實芍藥散
	二十一(六)	師曰: 產婦腹痛, 法當以枳實芍藥散, 假令不愈者, 此爲腹中有乾血著臍下, 宜下 瘀血湯主之, 亦主經水不利	下瘀血湯, 枳實芍藥散
	二十二(八)	婦人之病, 因虛, 積冷, 結氣, 爲諸經水斷絕, 至有歷年, 血寒積結, 胞門寒傷, 經絡凝堅, 在上嘔吐涎唾, 久成肺癰, 形體損分. 在中盤結, 橫臍寒疝, 或兩脇疼痛, 與臍相連, 或結熱中, 痛在關元, 脈數無痞, 肌若魚鱗, 時着男子, 非止女身.	
	二十二(十七)	婦人腹中諸疾病	當歸芍藥散
	二十二(十八)	婦人腹中痛	小建中湯

<表 30> 腹痛

處는 固定되어 있고 刺痛拒按한다. 下瘀血湯으로 破結逐瘀한다. 婦人의 病은 虛損, 積冷, 鬱結한 氣에 의해서 모든 經水가 斷絶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血分에 寒邪가 있어 胞門에 積結하여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寒邪가 經絡을 損傷함으로 일어난다. 邪氣가 上焦에 凝滯하면 반드시 가래침을 吐하게 되고 그것이 오래가면 肺癰이 되며 身體는 亞위게 된다. 寒邪가 中焦에 凝結하면 寒疝을 일으켜 臍주위가 冷痛하게 되며, 또는 兩脇이 아프고 그것이 肝臟에까지 뻗치게 된다. 또는 寒邪가 熱이되어 中焦에 熱結되면 痛症이 關元部에 있게된다. 脈이 數하면 瘡가 나오지만 數하면서 瘡가 나오지 않으면

患者의 皮膚는 고가비늘처럼 乾燥해서 주름이 생긴다. 이런 症狀은 女子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男子에게도 때때로 생긴다. 婦女患者雜病에는 많은 腹痛이 있는데 腹痛의 原因은 氣滯血凝, 挾水濕郁阻 때문이다. 當歸芍藥散으로 養血疏肝하고 理氣活血하며 健脾利濕하며 緩急止痛한다. 婦女가 中焦虛寒 또는 血虛에 寒邪入裏하여 脘腹痛 또는 少腹拘攣疼痛이 있고 喜溫喜按하며 脈이 沈弦 或은 虛弦者는 마땅히 小建中湯으로 溫中補虛 和裏緩急해야한다(표 30).

產後 七 八日이 지나 頭痛 發熱 惡寒등 太陽表證의 症狀은 없으나, 단 少腹硬滿疼痛은 나타나고 不大便, 心煩躁鬱하며 저녁 무렵

少腹堅痛	二十一(七)	産後七八日, 無太陽證, 少腹堅痛, 此惡露不盡, 不大便, 煩躁發熱, 切脈微實, 再倍發熱, 日哺時煩躁者, 不食, 食則譫語, 至夜即愈 宜大承氣湯主之, 熱在裏 結在膀胱也.	大承氣湯
------	--------	---	------

<表 31> 少腹堅痛

少腹脹痛	九(附九痛丸)	兼治卒中惡, 腹脹痛, 口不能言	九痛丸
	二十二(十)	帶下經水不利, 少腹滿痛, 經一月再見者	土瓜根散

<表 32> 少腹脹痛

腹中疝痛	二十(五)	婦人懷娠, 腹中疝痛	當歸芍藥散
	二十一(四)	産後腹中疝痛, …… 并治腹中寒疝, 虛勞不足	當歸生薑羊肉湯

<表 33> 腹中疝痛

腹中絞痛	十(二十附)	治寒疝腹中絞痛, 賊風入攻五臟, 拘急不得轉側, 發作有時, 使人陰縮, 手足厥逆	烏頭湯
------	--------	---	-----

<表 34> 腹中絞痛

腹中刺痛	二十一(附)	治婦人産後虛羸不足, 腹中刺痛不止, 吸吸少氣, 或苦少腹中急, 摩痛引腰背, 不能飲食.	內補當歸建中湯
	二十二(十六)	婦人六十二種風, 及腹中血氣刺痛	紅藍花酒

<表 35> 腹中刺痛

發熱이 加重되며 煩躁症은 다시 甚해지고 食慾이 없고 억지로 먹으면 譫語가 發하며 밤이 되면 症狀이 緩和된다. 이는 惡露가 없어지지 않고 瘀血이 下焦에 結滯되어 陽明實熱이 臟腑에 凝結되었기 때문이다. 陽明實熱은 비교적 重急하기에 大承氣湯으로 瀉熱瀉實해야한다<표 31>.

九痛丸은 卒中惡, 腹脹痛, 口不能言을 治療한다. 婦女가 少腹脹滿疼痛하고 月經이 한 달에 두 번 있는 경우 瘀血이 下焦에 막히어 나타나므로 土瓜根散으로 祛瘀通經한다<표 32>.

孕婦腹中拘急疼痛者는 脾虛濕郁, 肝血不足, 肝脾失和 氣機不暢 所致이다. 當歸芍藥散으로 健脾利濕, 養血疏肝, 緩急止痛, 痛止而胎自安이다. 産後에 腹中이 땅기며 아픈 경우

當歸生薑羊肉湯으로 다스린다. 또 腹中の 寒邪에 依한 疝痛, 虛勞不足도 다스린다<표 33>

寒疝으로 腹中이 쥐어짜는 듯이 아프고 賊風이 五臟을 攻入하므로 拘急하여 몸을 돌릴 수가 없으며 때때로 發作하며 陰囊이 오므라 들며 손발이 厥逆하는 症狀을 다스린다<표 34>.

內補當歸建中湯은 婦人이 出産후 매우 虛弱하고 아위며 腹部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持續性的의 아픔이 있고 呼吸이 얇고 或 少腹이 땅기고 아프며 腰背部까지 뻗치고 飲食을 먹을 수 없다. 婦人이 六十二種의 風病 및 瘀血氣滯로 起因한 腹中刺痛에는 活血行氣하는 紅藍花酒를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표 35>.

雷鳴切痛	十(十)	腹中寒氣, 雷鳴切痛, 胸脇逆滿, 嘔吐	附子粳米湯
------	------	----------------------	-------

<表 36> 雷鳴切痛

少腹寒	二十(三)	婦人懷娠六七月, 脈弦發熱, 其胎愈脹, 腹痛惡寒者, 少腹如扇, 所以然者, 子藏開故也.	附子湯
	二十二(八)	在下未多, 經候不勻, 令陰擊痛, 少腹惡寒, 或引腰脊, 下根氣街, 氣沖急痛, 膝脛疼煩; 庵忽眩冒, 狀如厥癲, 或有優慘, 悲傷多嘔, 此皆帶下, 各有病因.	
	二十二(九)	亦主婦人少腹寒, 久不受胎: 兼取崩漏去血, 或月水來過多, 及至其不來.	溫經湯

<表 37> 少腹寒

肚熱	十五(八)	師曰: 病黃疸, 發熱煩喘, 胸滿口燥者, 以病發時火劫其汗, 兩熱所得. 然黃家所得, 從濕得之, 一身盡發熱而黃, 肚熱, 熱在裏, 當下之
----	-------	--

<表 38> 肚熱

少腹不仁	五(附)	治脚氣上入, 少腹不仁.	崔氏八味丸
------	------	--------------	-------

<表 39> 少腹不仁

腹中에 寒氣가 있는 患者는 腸鳴이 우뢰와 같고, 끊어질 듯이 아프며 胸脇部는 逆氣上沖하는 느낌이 있고 또 脹滿 嘔逆한다. 이는 脾胃虛寒하고 寒凝氣滯하며 또 陰寒氣가 上逆하여 胃失和降 때문이다. 附子粳米湯으로 溫裏散寒하며 培土降逆해야 한다(표 36).

5) 少腹寒, 肚熱, 少腹不仁

婦人이 妊娠한지 六 七個月이되어 下焦陰虛寒盛하여 虛陽이 밖으로 나와서 發熱하며, 脈은 弦하다. 寒凝氣滯하면 배는 점점 부으며 腹痛이 있고 眞陽이 內餒하여 惡寒하며, 寒邪가 子宮을 侵犯하면 少腹이 冷한 것이 마치 부채로 부치고 있는 것과 같다. 下焦虛寒으로 因하여 陽實固攝하고 子宮이 弛緩되어 열려있기 때문에 胎가 下墮하려고 한다. 이때 溫裏扶陽하고 散寒緩宮而保胎하는 附子湯을 使用해야 한다.

婦人이 虛冷하여, 氣가 鬱滯하여 腹中에 모이면 少腹惡寒하며, 胞宮이 虛寒하면 또한

婦人은 少腹寒한다. 溫經湯을 使用한다(표 37).

黃疸病 患者에게서 發熱, 心煩氣喘, 胸滿, 口中乾燥等 症이 나타나는 것은 腹中의 熱이 盛할 때 나타나는 象이다. 이런 이유로 初期에 病을 얻어 發黃되지 않았을 때 醫師가 一般 表症으로 誤認하여 火法으로 發汗을 시켰기 때문에 火攻之熱과 原來의 熱이 合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原來 熱로 얻어지는 病이 아니라 濕으로 얻어지는 病이다. 全身에 熱이 나고 얼굴이 노랗게되며 특히 腹部가 熱이 난다. 이것은 熱이 體內에 있는 것이므로 瀉下法을 써야 한다(표 38).

脚氣가 上入(足部의 濕氣가 上行하여 腹部에 미침)하여 下腹部가 저리고 麻痺되는 症狀을 다스린다(표 39).

6) 臍周圍症狀

瘦瘠한 사람은 衛氣 또한 虛하므로 쉽게 風冷을 받아들이고 邪氣가 臟腑에 잘 들어온

繞臍痛	十(八)	夫瘦人繞臍痛, 必有風冷, 穀氣不行, 而反下之, 其氣必冲, 不冲者, 心下則痞.	
	十(十七)	寒疝繞臍痛, 若發則自汗出, 手足厥冷, 其脈沈而緊者	大烏頭煎

<表 40> 繞臍痛

臍上. 下悸	八(四)	發汗後, 臍下悸者, 欲作奔豚	茯苓桂枝甘草大棗湯
	十一(十)	心傷者, 其人勞倦, 卽頭面赤而下重, 心中痛而自煩, 發熱, 當臍躁, 其脈弦, 此爲心臟傷所致也.	
	十二(三十一)	假令瘦人臍下有悸, 吐涎沫而癩眩, 此水也	五苓散
	二十(二)	婦人宿有癥病, 經斷未及三月, 而得漏下不止, 胎動在臍上者, 爲癥瘕客, 妊娠六月動者, 前三月經水利時, 胎也. 下血者, 後斷三月胚, 所以血不止者, 癥不去故也. 當下其癥.	桂枝茯苓丸

<表 41> 臍上·下悸

臍腫	十四(十七)	腎水者, 其腹大, 臍腫腰痛, 不得溺, 陰下濕如牛鼻上汗, 其足逆冷, 面反瘦
----	--------	--

<表 42> 臍腫

다. 寒凝中焦하면 胃腸氣滯하고 輸運機能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배꼽주위에 아픔이 있고 大便不通이 나타난다. 醫師가 상세히 살펴보지 않고 反對로 攻下劑를 쓰면 風冷의 氣가 上冲하여 胃脘에 結滯하면 痞證을 形成한다.

寒疝病에 배꼽주위가 아프고 病이 發할 때 冷汗이 흐르고 手足에서 冷이 逆上하게 된다. 그 脈이 沈緊한 경우 大烏頭煎을 使用한다(표 40).

病者가 發汗후 비록 外邪는 나았지만 또 臍下小腹內에 跳動不寧하는 것은 奔豚이 일어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下焦에 水氣가 있는데 發汗으로 心陽을 傷해 水氣가 心을 上凌하기 때문이다. 茯苓桂枝甘草大棗湯으로 培土制水하며 通陽平冲해야 한다.

心傷者는 心血心氣가 損傷된 病이다. 그 患者가 勞倦하면 心血이 다시 消耗되어 陽이 上浮하기를 바라는데 下는 提攝機能을 상실하여 頭面部가 紅赤하며 아랫배가 시원하지 않다. 陰血虛하면 內熱이 요란하여 心中痛과

自煩 發熱한다. 心氣不足하면 下焦濁陰이 上凌하여 臍部가 跳動한다. 心血이 不充한 脈은 비록 弦하다 해도 按하면 空虛하다. 이것은 心臟의 氣血이 損傷된 所致이다. 假令 瘦瘠한 사람이 臍下小腹에 動悸가 있고 嘔吐涎沫하며 또 頭暈 目眩하는 것은 下焦陽氣가 弱하고 膀胱氣化가 不行하여 水陰이 內에서 蓄積되어 上逆한 까닭이다. 마땅히 五苓散으로 化氣行水하여야 한다. 婦人에게 癥病이 있는데 月經이 끊어진지 三個月이 되지 않은 동안에 子宮에서 下血하고 더욱이 멎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며 胎動이 臍上에 있는 경우 慢性化한 癥病이 妊娠을 害한 것이다. 만일 妊娠 六個月로 胎動이 있고 前三個月의 經水가 정상인 경우 胎兒의 胎動이다. 月經이 끊어진지 三個月이 되려고 하는 때에 또 子宮에 出血이 있는 것은 凝血이다. 子宮에서 出血이 있고 게다가 出血이 멎지 않는 것은 癥病이 아직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桂枝茯苓丸으로 癥病을 治療한다(표 41).

腸鳴	一(十三)	陰病十八 何謂也? 師曰: 咳, 上氣, 喘, 噦, 咽, 脹鳴, 脹滿, 心痛, 拘急.	
	六(十)	人年五六十, 其病脈大者, 痺俠背行, 若腸鳴, 馬刀俠廕, 皆爲勞得之	
	十二(二)	問曰: 四飲何以爲異? 師曰: 其人素盛今瘦, 水走腸間, 漉漉有聲, 謂之痰飲. 飲後水流在脇下, 咳唾引痛, 謂之懸飲. 飲水流行, 歸于四肢, 當汗出而不汗出, 身體疼重, 謂之溢飲. 咳逆倚息, 短氣不得臥, 其形如腫, 謂之支飲.	
	十四(三十)	問曰: 四飲何以爲異? 師曰: 其人素盛今瘦, 水走腸間, 漉漉有聲, 謂之痰飲. 飲後水流在脇下, 咳唾引痛, 謂之懸飲. 飲水流行, 歸于四肢, 當汗出而不汗出, 身體疼重, 謂之溢飲. 咳逆倚息, 短氣不得臥, 其形如腫, 謂之支飲.	
	十七(十)	嘔而腸鳴, 心下痞者.	半夏瀉心湯

<表 43> 腸鳴

腎陽虛로 因하여 不能和氣行水로 水氣가 泛濫하여 內腹中에 모여 腹脹大하고 臍部腫 突한다. 水氣가 腎腑에 侵入하면 腰痛, 小便 不利하며, 水氣가 下部에 모임엔 潮潤而涼하 고 牛鼻上에 땀이 나는 모양과 같다. 陰盛陽 微하면 下溫이 不能하여 兩足이 逆冷한다. 腎虛하여 不能上榮于面하는 故로 얼굴은 反 對로 消瘦하다(표 42).

7) 腸鳴

陰病十八은 무엇인가? 스승이 말하기를 咳, 上氣, 喘, 噦, 咽, 腸鳴, 脹滿, 心痛, 拘 急이다.

사람이 五六十세에 도달했을때 그 脈은 虛大 無力하며 精血은 內에서 어지럽게 되고 經脈은 失濡하며 脊背兩傍이 麻木不仁하는 것을 많이 본다. 만약 患者의 腸鳴이 자주 나타나 는 것은 勞傷脾腎으로 中氣가 虛하여 寒이 발생하고 陽氣는 外浮하면 脈은 반드시 浮洪 無力하다. 患者가 馬刀挾廕하는것은 陰虛火 動이며, 挾痰이 經脈部位에 結體되었기에 脈 또한 虛浮而大이다. 이것은 모두 勞傷의 所致이다.

물기를 四腫의 飲病은 어떤 差異가 있습니 까? 答하기를 그 患者가 平素에는 肥滿해 있 었으나 지금은 瘦瘠해 있으며 물이 胃腸속을 흐를 때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 痰飲이 며, 물을 마신 뒤 水液이 脇下部에 流注하고

기침을 하거나 痰을 뱉으려하면 脇下部疼痛 을 發하는 것은 懸飲이며, 물을 마신 다음 水液이 四肢까지 흘러가서 본디는 땀이 나 는 데도 땀으로 排出하지 않아 身體가 아프고 무적지근한 경우를 溢飲이라고 기침을 하 면 氣가 치밀어 올라 벽같은데 기댄 채로 헉 헉 숨이 차고 누울 수 없으며 몸이 붓는 경 우를 支飲이라한다.

寸口脈이 遲濇한 것은 遲는 寒邪를 나타내는 것이고 濇은 血不足을 나타낸다. 跌陽脈이 微遲한 것은 微는 陽氣가 不足한것이고 遲는 寒邪가 있는 것을 가르킨다. 寒邪가 있고 陽氣가 不足하면 手足이 逆冷하고 手足이 逆冷 하면 營氣와 衛氣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며 營衛不利가 되면 腹滿과 腸鳴이 發生한다.

嘔吐와 胃脘部痞塞脹滿과 腸鳴漉漉은 中焦 寒熱의 邪氣가 서로 結滯된 것으로 脾胃不 和, 水穀失運, 升降失常의 所致이다 辛開苦降 하고 和中止嘔하는 半夏瀉心湯을 使用한다 <표 43>.

4. 部位別 腹證의 頻度

金匱要略중에서 常見腹證으로 표현된 것중 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腹滿"으로써 金匱要略條文中에서 25곳에서 각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腹痛"이 20곳에서, "胸滿"이 17곳에서 분포

胸脇部 腹證	條 文	條文數
胸滿	1(13), 2(13), 2(16), 5(3), 7(12), 7(부), 7(15), 9(5), 12(26), 12(36), 14(1), 14(6), 15(8), 16, 16(10), 16(11), 17(8)	17
咳滿	12(37), 12(38)	2
喘滿	7(2), 12(11), 12(12), 12(24)	4
心胸不安	15(13)	1
胸中窒	14(4)	1
欲蹈胸上	11(7)	1
胸滿逆滿	10(10)	1
脇下支滿	12(6)	1
胸脇支滿	12(16)	1
胸脇滿	22(3)	1
胸痛	7(1), 9(1), 9(3), 9, 11(5), 12(21), 12(33), 14(21), 14(29)	9
脇痛·兩脇痛	10(1)	1
脇痛	10(5), 10(15), 10(18), 11(4), 11(20), 12(9), 14(21), 22(8)	8
胸中冷	17(4)	1

<表 44> 胸脇部腹症

心下部 腹證	條 文	條文數
心下堅	10(20), 12(3), 12(18), 12(24), 14(31), 14(32), 17(37)	7
心中(下)痞	9(5), 9(8), 10(8), 12(30), 17(10), 22(7)	6
心下悶	21(8)	1
心下痛	10(12), 20(10白朮散)	2
按之濡	17(44)	1

<表 45> 心下部 腹症

되고 있다. 그의 少腹拘急이 10곳에서, 胸痛이 9곳에서, 脇痛이 8곳에서, 心下堅이 7곳에서, 心中(下)痞가 6곳에서, 腹大·腸鳴이 각각 5곳에서, 腹脹·臍上下悸·喘滿이 각각 4곳에서, 如腫狀·少腹寒이 각각 3곳에서, 腹重·少腹脹痛·腹中疝痛·腹中絞痛·腹中刺痛·繞臍痛·咳滿·心下痛·腹脹滿이 각각 2곳에서, 心胸不安·胸中窒·欲蹈胸上·胸滿逆滿·脇下支滿·胸脇支滿·胸脇滿·脇痛兩脇痛·胸中冷·心下悶·按之濡·少腹堅痛·雷鳴切痛·肚熱·少腹不仁·臍腫등이

1곳에서 분포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類度表는 다음과 같다(표 44.45.46).

5. 腹證에 출현하는 腹部按診

1) 脇痛

積者, 臟病也, 終不移, 聚者, 腑病也, 發作有時, 展轉痛移, 爲可治. 穀氣者, 脇下痛, 按之則愈, 復發爲穀氣. 11(20)

2) 心下堅

其脈數而緊乃弦, 狀如弓弦, 按之不移. 脈數弦者, 當下其寒, 脈大而遲者, 必心下堅, 脈大而緊者, 陽中有陰, 可下之.

腹部 腹證	條 文	條文數
腹脹滿	17(33), 17(36)	2
腹脹	2(8), 9(附九痛丸), 10(20附走馬湯), 15(14)	4
腹滿	5(附三黃湯), 6(5), 6(11), 10(篇名), 10(1), 10(2), 10(3), 10(9), 10(13), 12(29), 14(1), 14(12), 14(30), 15(2), 15(3), 15(5), 15(14), 15(19), 15(20), 16(10), 17(7), 20(11), 22(9), 22(10), 22(13)	25
腹大	14(1), 14(11), 14(14), 14(16), 14(17)	5
腹重	11(13), 11(16)	2
如腫狀	15(2), 18(3), 18(4)	3
少腹拘急	1(13), 6(8), 6(13), 6(14), 6(15), 10(18), 13(7), 18(3), 21(附), 22(9)	10
腹痛	1(3), 6(13), 8(2), 10(11), 10(17), 10(18), 10(19), 10(20附), 14(6), 14(14), 14(22), 15(21), 19(5), 20(3), 20(10), 21(5), 21(6), 22(8), 22(17), 22(18)	20
少腹堅痛	21(7)	1
少腹脹痛	9(附九痛丸), 22(10)	2
腹中疝痛	20(5), 21(4)	2
腹中絞痛	10(20附)	2
腹中刺痛	21(附), 22(16)	2
雷鳴切痛	10(10)	1
少腹寒	20(3), 22(8), 22(9)	3
肚熱	15(8)	1
少腹不仁	5(附)	1
繞臍痛	10(8), 10(17)	2
臍上·下悸	8(4), 11(10), 12(31), 20(2)	4
臍腫	14(17)	1
腸鳴	1(13), 6(10), 12(2), 14(30), 17(10)	5

<表 46> 腹部 腹症

10(20)

下利三部脈皆平，按之心下堅者，急下之，宜大承氣湯。17(37)

3) 心下痛

按之心下滿痛者，此爲實也，當下之，宜大柴胡湯。10(12)

4) 按之濡

下利後更煩，按之心下濡者，爲虛煩也，梔子豉湯主之。17(44)

5) 腹滿

病者腹滿，按之不痛爲虛，痛者爲實，可下之，舌黃未下者，下之黃自去。10(2)

6) 腹大

皮水其脈亦浮，外證附腫，按之沒指，其腹如鼓，不渴，當發其汗。14(1)

7) 如腫狀

脹癰之爲病，其身甲錯，腹皮急，按之濡，如腫狀，腹無積聚，身無熱，脈數，此爲腹內有癰膿，意以附子敗醬散主之。18(3)

脹癰者，少腹腫痞，按之即痛如淋，小便自調，時時發熱，自汗出，復惡寒，其脈遲緊者，膿未成，可下之，當有血。脈洪數者，膿已成，不可下也。大黃牡丹湯主之。18(4)

8) 少腹拘急

脹癰之爲病，其身甲錯，腹皮急，按之濡，如腫狀，腹無積聚，身無熱，脈數，此爲脹內有癰膿，薏苡附子敗醬散主之。18(3)

대한 연구는 診斷學的으로 매우 價値가 있는 것으로써 더 많은 研究가 반드시 必要하리라 思料된다.

V. 結 論

金匱要略의 常見腹證을 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다.

1. 金匱要略 腹證을 總括하여 보면 胸脇部腹證, 心下部腹證, 腹部腹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胸脇部腹證中에는 胸滿, 胸痛, 脇痛證이, 心下部腹證中에는 心下堅, 心下痞證이, 腹部腹證에는 腹滿, 腹痛, 少腹拘急證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3. 腹證에 따른 腹部按診은 脇痛, 心下堅, 心下痛, 按之濡, 腹滿, 腹大, 脹癰, 少腹拘急證에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部位에 따른 腹證과 腹證에 따른 按診 및 處方의 과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보아, 金匱要略의 腹證에

參考文獻

1. 李東建: 國譯金匱要略, 서울: 書院堂, 1996.
2. 李鳳教: 韓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97.
3.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서울: 翰林院, 1986.
4. 殷光周·王久源·吳潛智: 金匱要略手冊, 重慶: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8.
5. 杜雨茂·張聯惠: 金匱要略闡釋, 陝西: 陝西科學技術出版社, 1987.
6. 사정문·왕건평: 金匱要略자학보도, 중의고적출판, 1988
7. 양향휘: 金匱要略주석, 국립편역관, 1975
8. 염선덕·장가예: 金匱要略, 중의문화출판공사, 1988
9. 李載熙: 腹證奇覽翼, 서울: 醫學研究社, 1996.
10. 張仲景: 金匱要略方論, 신세계출판사, 1987

=Abstract=

A Study of Abdominal Syndrome in Jin Kui Yao Lue

Mun-Yeup Hong · Sun-Dong Park · ¹⁾Won-Hwan, Park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¹⁾*Department of Prescrip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subject of Abdominal syndrome in the field of Jin Kui Yao Lue takes a quarter of the whole research quantity, and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iagnoses due to the well-growth of syndrome differentiation through 'the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based on prescriptions'-centered abdominal syndrome.

Since then, while the diagnostic has been developed mainly in the field of pulse feeling and the inspection of the tongue, application of the abdominal diagnostic has not been continuously improved because of special historical and social environments.

Recently, since interest in the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signs based on abdominal syndrome has been raised by emphasis of Oriental diagnostic methods and medical treatment which have led to the study of Abdominal Syndrome in Jin Kui Yao Lue.

The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study.

1. Jin Kui Yao Lue abdominal syndrome is categorized into all abdominal symptoms Epigastric symptoms, Hypochondrium symptoms, and Lower abdomen symptoms.
2. Subjective symptoms and Objective symptoms have been found in Abdominal syndrome, and Subjective symptoms have been more often than Objective symptoms. Both of the symptoms have been found more to co-exist in abdominal syndromes.
3. More cases of fullness of abdomen symptoms in All abdominal symptoms, a smaller number of cases in Taiyang disease, Yangming disease, disease involving all three yang, Tayin disease and Jueyin disease have been found, but there have not been found in Shaoyin disease.
4. More cases of Epigastric fullness and rigidity in Epigastric symptoms, Epigastric throbs in Palpitation symptoms, and sense of fullness-in-chest in Abdominal syndrome of chest and hypochondrium have been recognized.
5. Any regularity caused by abdominal symptoms has not been identified.
6. Diagnosis of the abdomen caused by abdominal symptoms has been identified in Epigastric fullness, Epigastric pain, Epigastric procrastination, Epigastric throb, fullness of abdomen and distension of lower abdomen.

key word : Jin Kui Yao Lue, diagnosis and treatment, Shang Han Lun, adominal syndrome, the differentiation of symptoms and prescription, diagnosis of epigastric